

탄소중립 실천 우수마을 시상

무주군, 환경 인식 전환·친환경 생활실천 기회 제공 취지... 하가마을 '최우수' 선정

무주군이 기후변화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기후안심도시 무주를 지속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실천마을 운영은 일상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친환경 생활실천을 습관처럼 이행한다는 취지다.



무주군이 기후변화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6개 마을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마을 운영 결과 최우수 마을에 하가마을(적상면)로 선정했다. 우수마을은 신촌마을(안성면)과 마산마을(적상면)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전도마을(무주읍)과 장안마을(부남면), 석항마을(무풍면)로 확정했다.

이에 20일 무주군은 최우수 마을에 3백만 원이 시상금을 전달했으며 우수 마을에는 각 2백만 원, 장려상을 받은 마을에는 각각 1백만 원의 시상금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2022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연 초 최소 30세대 이상 실거주하는 규모화 된 마을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시행 했다.

군에서 양성된 온실가스 컨설턴트들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종합 컨설팅과

함께 1:1 환경 교육의 효과를 거뒀다. 평가방법은 마을 자체 기후위기대응 생활 실천으로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환경회의(교육) 실시한 횟수 및 전년 대비 전기 및 수도사용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해 한 해 동안 감축한 양, 군에서 주최한 환경아카데미 참여 실적 탄소흡수원(나무심기) 확대 등 친환경 활동 실적을 토대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졌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박

영석 팀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 안심도시 무주를 조성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온실가스 컨설턴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마을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속·양질 소방서비스 기대

진안군, 용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화재진화차 차고 준공식

진안군은 20일 용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화재진화차 차고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

규 군의장, 군의원, 오정철 진안소방서장, 전용태 도의원,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용담면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

장에서 대피나 구호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방홍보를 펼치며 안전 피수군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진화차 차고 준공식은 그동안 화재진화차가 없어 화재발생 시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출동이 이뤄져 조기에 화재 피해를 진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담면 주민들에게 신속한 현장 지원을 펼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한층 발전된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돼 의용소방대원 상호 간 소통과 전문능력 배양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용담면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며 "면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화재진화차 차고 준공식 모습.

행복 장수 실현 위한 성금 줄이어

장수군에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이웃돕기 지정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장수군청에 방문한 미르건축사무소(대표 이승권)와 유한회사 제이디엔지니어링(대표 서수연)은 성금 각 200만원을 관내 취약계층들을 지원해 달라며 지정기탁 했으며,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단법인 행복드림 복지회(대표 조연용)에서는 성금 300만원을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지정기탁 했다.

본 기탁 성금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연말을 맞아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지원을 통해 행복장수 실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연말을 맞아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장수군 연세의원은 지난 19일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연세의원(원장 전홍준)은 작년 12월 협의체에 성금을 기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탁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홍준 원장은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시장마을 이희술 이장이 연말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한 이희술 이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나눔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달된 기탁금은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쓰이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2023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 총력

진안군은 주민들의 영농활동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진안군 조기발주 추진단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분청과 읍·면사무소 직원 등 4개반 14명으로 구성한다.

올해는 지난 12월초부터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해 총 608건, 사업비 140억2200만원에 달하는 농로, 배수로, 세천 등의 공사를 위한 측량 및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 운영은 예년보다 한 달여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으로 이번 합동 사무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현지 여건

에 적합한 공법과 적정 단가 산정해 설계에 일괄 반영하는 등 자체 설계로 6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23년 2월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및 우기 이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사전에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측량 시 현지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담아 설계에 반영하고, 편입 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마쳐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근로자 대상 안전 실습교육

진안군은 유령 관광평소인 윤일암반일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응급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윤일암반일암 계곡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구름다리 개통으로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진안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이번 교육은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대처법과 CPR 에니모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자세, 자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근로자 대상 안전 실습교육 모습.

지역 소식 통

무진장축산농협 한우고기 할인행사 실시

무진장축산농협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1일간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무진장축협은 한우 소비시장 약화로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진장 지역 대규모 할인행사를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하게 되었다.

이번 할인행사는 한우 구이용 및 국거리, 불고기용 1등급부터 1++등급까지 10~35% 할인을 실시한다.

무진장축협은 지역 한우사육가의 소값 하락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역소비자에게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장수한우를 판매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지역은 무진장 지역에 있는 무진장축협 하나로마트 점 매장(무주지점하나로마트, 장수지점하나로마트, 진안본점 및 유포센터 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실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등 폐쇄·차단행위 근절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조재실)은 판매·의료·노유자·교육연구·숙박·문화집회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 조작으로 화재진압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또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돼 인명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을 위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